



묵어



도수

정업도량 회주
본지 논설위원

무심코 길을 걷고 있었다. 처녀인 듯한 한 젊은 여성이 불쑥 다가오더니 말을 건넌 태세다. 길을 묻나 했더니 웬걸,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죠”한다. 승복을 입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당황하게 그런 말을 던진다는 것은 “옳지 제대로 만났구나!” 하며 일부러 내게 접근해 온 것이 분명하다.

가끔 대중 속에서 웅감하게 선교 활동을 하는 타종교 사람들을 본다. 한편으로는 확신이 대단하거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측은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아무리 선교의지가 하늘을 찌르다 해도 인간적 예의를 차리지 못하고 최소의 체면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보다 한 차원 높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싶어서다.

그럴 때면 그 당사자보다는 그가 다니는 교회의 성직자 얼굴이 먼저 그려진다. 도대체 신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극치의 편견증세를 보이며 저렇게 무모할 수 있을까. 그런 종교지도자들이 이끄는 이 사회에서 과연 화해가 가능할까. 객기가 발동했다. “내가 보기에 아가씨는 앞으로 3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지 모르겠는데, 남의 격정일랑 말고 본인 격정이나 하시죠.” 한마디를 더 붙였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시면 축하를 해야 하나요. 애도를 해야 하나요?” 그녀는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손살갑이 그 자리를 떠났다.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 볼 기회가 되길 바라고 한 말이었지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혹시 3년간 시름시름 앓지나 않을까 자책감도 느끼며 나도 천천히 발길을 떴었다.

강물이 심하게 오염되면 기형 물고기가 생긴다. 어떤 놈은 눈이 튀어나오고, 어떤 놈은 지느러미가 썩어버리고, 어떤 놈은 허리가 휘어지고, 어떤 놈은 배가 비틀어집니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여러 결과가 나옵니다. 강물이 맑아지면 모든 물고기들이 정상하게 잘 늙습니다.

사회가 심하게 혼탁하면, 미친 사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속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여러 미친 행동이 나옵니다. 사회에 진리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참으로 피눈물이 납니다. 만약에, 가정하기 싫지만, 정말 만약에, 아내가 그 장소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가정을 해 봅니다. 참으로 가슴이 찢어집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불을 지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신병자니까, 혹은 장애인이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의 모든 비행에 대해서 비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생각나는 둘째 사람은 지하철 관련자입니다.



불자 세상보기

조현춘 교수

경북대 심리학과

대구 지하철 참사, 우리 모두 탓

이런 정도의 우발적 사고에도 대응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설계자와 이런 설계자에게 설계를 맡긴 사람입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무식한 필자가 할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대구 지하철은 처음부터 무식한 혹은 간교한 자들의 장난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1호선의 노선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청, 시청, 대학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은 교육학자 혹은 교육부 직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모든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학자 혹은 교육부 직원들이 국민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논문을 통해서 지적하였지만,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언비어입니다. 필자는 철저한 과학논리와 성현들의 가르침이 융화된 사회가 이루어져야 행복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논리학이나 성현들의 가르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필자 자신

과 불교신자들입니다. 우리 불교 신자들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였거나, 혹은 세상을 맑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행동을 하여 고통받는 것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합니다. 지하철 사고와 같은 사고는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은 막기 위해 우리 불교신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우리 불교신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받아들여 독송하고 남들에게 설해 주어야 합니다.

필자는 ‘나무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합니다. 무비스님과 필자가 번역한 <한글세대를 위한 독송용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세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란색 꽃과 파란빛을 내는 꽃들도 피어있고, 노란색 꽃과 노란빛을 내는 꽃들도 피어있고, 빨간색 꽃과 빨간빛을 내는 꽃들도 피어있고, 하얀색 꽃과 하얀빛을 내는 꽃들도 피어있고, 온갖 색 꽃과 온갖 빛을 내는 꽃들도 피어있고,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나라 극락세계를 바라보며, 이 웃을 아미타 부처님으로 받들어 모십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한반도 평화 만들기 종교인 포럼

증오와 적개심 먼저 참회해야



■ 북핵 위기, 화해와 해법

학담스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대 이라크 전쟁위기와 함께 지금 북한 핵 문제가 평화와 안보에 관한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현대전의 특성상 전쟁이 나면 전 민족이 함께 공멸의 나락에 떨어질 현실을 생각하며 전 민족적 안보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북한 핵 문제는 힘을 가진 자가 넘치는 힘을 밖으로 과시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체제의 안전과 생존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막다른 골목에서 일으키는 자기방어를 위한 몸부림으로써



■ 남북관계와 미국

이우영 박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미국은 9.11사태 이후 세계전략 차원에서 반 테러전쟁의 의지와 과단성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 북한 또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폐기가 이뤄져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북한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어느 한쪽이 바꾸지 않는 한 핵문제는 장기화될



■ 북 실정과 종교인의 자세

홍창진 신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천주교 회장

이미 북한의 식량난이나 사회 전 부분에 걸친 위기는 인류사회의 재앙으로 로까지 비추고 있다.

여기서 우리 종교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지구촌 구석구석에 까지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는 경쟁력이 없거나 뒤쳐진 가난한 나라와 사람들을 더욱 더 빈곤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기수역할을 자임하는 미국과 영국이 호시탐탐 이라크를 침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도

항북문서 받아내기 방식은 위험

시위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모든 대중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밀어붙이기 항북문서 받아내기 식이 아니라 북의 피해의식의 뿌리 없애줌을 통해 안보에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대북송금문제 또한 비록 국민적 합의, 절차상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비유지출의 대가로 민족경제 공동체의 문을 열었으며, 화해 협력의 길을 닦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종교지도자들도 자기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도들에게 회개와 참회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인간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부추긴 죄업을 역사의 성전에서 참회해야 할 것이다.

군사·자본 이해관계 등 검토 필요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 폐기선언을 장기간 유보하거나 폐기를 향한 전향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남북관계의 경색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때 군사복합체를 포함한 자본의 이해관계 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남북관계 및 국내 현실에 대한 냉철한 반성도 필요하다. (사건제공=경향신문)

시민단체 연대한 국민참여 유도

의미심장하다. 얼마 전 독일 종교인들이 이라크 전쟁을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이며 부시 대통령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던 점은 우리들에게 시사한 바 크다.

우리 종교인들은 아직 300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와 인류를 향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야 할 때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시민단체와 연대해 캠페인에 주축하고 천만명 이상의 범국민 서명운동을 주도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짐과 결의를 모아야 한다.

박물관 도시로 변신하는 공주

인구 14만의 중소도시인 공주시가 내년에 박물관 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마곡사가 보물인 석가모니 폐불탱화 등 불교유물을 전시할 성보유물전시관을 내년에 개관하고, 국립공주박물관과 구석기유적전시관, 세계만물박물관도 새로 지어내 내년 문을 연다. 공주민속극박물관, 산림박물관, 웅진교육박물관을 합치면, 공주는 6곳의 박물관과 3곳의 전시관을 보유하는 박물관 도시가 된다.

장군축매

방생금지, 붉은귀거북 밀수입 극성

방생금지 물품인 붉은귀거북(일명 청거북)이 다시 밀수입 되고 있다. 붉은귀거북은 토종 물고기를 닮는 대로 잡아먹기 때문에 2001년부터는 수입이 금지된 생태계의 무법자. 붉은귀거북의 대부분은 대보름부터 시작되는 불교행사에서 방생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 금지된 붉은귀거북을 팔고 사는 사람들은 2002년 발간된 조계종 <방생지침서>를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중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중(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논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중(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졸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게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락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대상책임보험 3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미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발걸음 되어서 부처님의 가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과 자녀의 행복한 사랑의 결실이 보람찬 한해로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 위치 안내 ◁
1호선 부천역 하차 북부역 광장 우측 서울 방향 첫번째 골목으로 150m정도 직진
의원오피스텔 202호

※ 방문전 전화 약속

※ 신생단체 특별상담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32)654-5411

휴대폰: 011)288-2944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도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용승복 직원일동 —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 바지 ₩160,000	3. 두루마 ₩140,000	4. W60,000
5. 적삼, 조끼, 바지 ₩320,000	6. 동방, 바지 ₩220,000	7. 두루마 ₩250,000	8. 셔츠 ₩30,000

※ 적삼, 기삼, 바방 및 기삼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 해동승복

대구 교역로에세이 4호 동부점주방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리온드림 ₩30,000

자이언팅 ₩30,000

8. 셔츠 ₩50,000 (자이언팅, 리온드림) 바지 ₩60,000